

보도 자료 2019 년 3 월 15 일

대화 시작을 돕기 위한 신규 온라인 안전 캠페인

오늘 전국 괴롭힘 및 폭력 퇴치 운동의 날을 맞아 학부모, 보호자, 교사들이 온라인 안전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.

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주 어린이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사이버 괴롭힘, 낯선 사람들과의 원치 않는 접촉, 사회적 소외 등 부정적인 온라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본 캠페인의 목적은 부모, 보호자, 교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적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“연구 결과에 따르면 81 퍼센트의 부모들이 학령 이전의 아이들에게 인터넷 연결 기기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가정에서 안전한 온라인 이용 행동에 대해 개방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,” 라고 줄리 인먼 그랜트 (Julie Inman Grant) eSafety 청장이 말했습니다.

“기술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, 부모와 교사,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데 우리 모두가 일조할 수 있습니다,” 라고 그랜트 청장이 덧붙였습니다.

학부모와 보호자, 교사들은 eSafety [웹사이트](#)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, 온라인 상에서의 행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결과와, 일부 경우, 법적인 결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“오늘, 전국 괴롭힘 및 폭력 퇴치의 날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중 하나는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,” 라고 그랜트 청장이 말했습니다.



전국 괴롭힘 및 폭력 퇴치의 날을 맞아 호주 전국의 5,000 개 이상 학교에서 2 백만이 넘는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‘괴롭힘, 절대 반대’를 외쳤습니다.

제 9 회 전국 행동의 날을 맞아 괴롭힘과 폭력이 학교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학생, 교사, 학부모들이 단호히 맞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.

“온라인 상 괴롭힘은 협박과 동의 없이 게시한 콘텐츠, 욕설, 원치 않는 문자 등,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그것이 결코 괜찮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,” 라고 인먼 그랜트 청장이 강조하였습니다.

eSafety 에서는 전국의 학교들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실질적인 전략을 통해 온라인 괴롭힘을 예방, 관리, 보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[가상 교실](#)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015 년부터 320,0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교실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.

학부모, 보호자, 교사 등 누구든지 다음의 eSafety 웹사이트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: esafety.gov.au.

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인터뷰 요청 시 연락처: 담당자 **Embrace Society** 의 **Paula Masselos, 전화** 02 8090 7737 번과 0419 292 207 번이나 이메일 paula@embracesociety.com.au 로 연락하십시오.